<h1>나 혼자만 레벨업-12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b9075a79aa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2화</p>  
<p>'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..'</p>  
<p>혹시나 싶어 헌터 전용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보았다.</p>  
<p>[제목: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]</p>  
<p>[내용: 갑자기 게임처럼 능력치가 보이고, 능력치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?]</p>  
<p>그 밑으로 댓글들이 폭주했다.</p>  
<p>└익명: ㅋㅋㅋㅋㅋ 아주 지랄을 해라, 지랄을.</p>  
<p>└익명: 그냥 미친 거 아니냐?</p>  
<p>└익명: 맛이 갔네.</p>  
<p>└익명: 게임을 너무 하신 거 같습니다...</p>  
<p>└익명: 혹시 만화가이신가요?</p>  
<p>└익명: 가까운 병원으로 ㄱㄱ</p>  
<p>└익명: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</p>  
<p>└익명: 자격증 있다고 어중이떠중이 다 받지 말고 카페 물갈이 한번 싹 해야 하는데...</p>  
<p>수십 개의 댓글이 전부 다 비슷한 내용들이었다.</p>  
<p>"에휴-."</p>  
<p>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꽤 오랜 시간을 들였지만 건질만 한 소득은 없었다.</p>  
<p>카페에서는 미친놈이라며 손가락질까지 당했다.</p>  
<p>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오는 정보가 없다면...</p>  
<p>"내 경우가 유일하다고 봐야겠지."</p>  
<p>유일무이(唯一無二).</p>  
<p>세상 유일한 헌터!</p>  
<p>이 기현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, 어디까지가 성장의 한계일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일단 어감은 나쁘지 않았다.</p>  
<p>주변을 둘러보니 벌써 밤이 깊어진 상태였다.</p>  
<p>"언제 시간이 이렇게..."</p>  
<p>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.</p>  
<p>늦은 시간까지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었더니 눈이 침침했다.</p>  
<p>미간을 만지작거리던 진우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다.</p>  
<p>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길 수차례.</p>  
<p>옆구리를 기역 자로 꺽어 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자 두 개를 발견했다.</p>  
<p>"아."</p>  
<p>랜덤 박스.</p>  
<p>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단색의 포장지에 리본으로 묶여 있는 작은 상자 두 개.</p>  
<p>'아까 난리법석을 떨 때 침대에서 떨어졌구나.'</p>  
<p>보상으로 받았던 상자를 깜박 잊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가까이에 있는 상자 하나를 주워 안을 열어 보았다.</p>  
<p>"...반창고?"</p>  
<p>일견 반창고처럼 보이는 '그것'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녹색 글자로 정보가 떠올랐다.</p>  
<p>[아이템: 반창고]</p>  
<p>평범한 반창고, 작은 상처에 붙이면 좋다. 인벤토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.</p>  
<p>"진짜 반창고 맞네."</p>  
<p>혹시 던전에서 구할 수 있는 보물들처럼 특수한 기능이 있을까 기대해봤지만 그렇지는 않았다.</p>  
<p>'하긴 던전에서 반창고가 나온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고...'</p>  
<p>진우는 실망 반, 기대 반으로 다른 상자도 마저 뜯었다.</p>  
<p>거기서는 볼펜이 나왔다.</p>  
<p>여기저기 훑어보고 끝을 눌러 볼펜심을 튀어나오게도 해 봤지만 이것 또한 평범한 볼펜이었다.</p>  
<p>[아이템: 볼펜]</p>  
<p>평범한 볼펜, 메모하기에 좋다. 인벤토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.</p>  
<p>아무래도 랜덤박스에서는 말 그대로 잡다한 물건들이 랜덤으로 튀어나오는 듯했다.</p>  
<p>"흠..."</p>  
<p>그래도 소득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.</p>  
<p>비록 반창고나 볼펜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녀석 덕분에 인벤토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.</p>  
<p>방 안의 다른 물건들은 정보가 뜨지 않는 걸 봐선 랜덤 박스에서 나온 물건들만의 특징인 듯했다.</p>  
<p>"인벤토리."</p>  
<p>인벤토리를 불러내자 허공에 수십 개의 칸을 가진 그래픽 창고가 생성되었다.</p>  
<p>레벨 1 유저의 창고답게 안은 텅 비어... 있지 않았다.</p>  
<p>비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벤토리 첫 번째 칸에 낯익은 물건 하나가 들어가 있었다.</p>  
<p>"저건...?"</p>  
<p>진우는 그것을 꺼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템: 김상식의 강철검]</p>  
<p>공격력 +10.</p>  
<p>지하 신전에서 주웠던 김 씨 아저씨의 검이었다.</p>  
<p>게이트 안에 버려두고 나온 줄 알았는데.</p>  
<p>"반갑다, 인마."</p>  
<p>진우는 웃음이 흘러나왔다.</p>  
<p>함께 사경을 헤쳐 나온 사이라 그런지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반가웠다.</p>  
<p>그리고 그대로 이공간의 미아로 놔두기엔 아까운 물건이기도 했다.</p>  
<p>'김 씨 아저씨가 이놈을 3백만 원에 샀다고 했던가?'</p>  
<p>헌터들의 무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은 그렇지가 않다.</p>  
<p>마수들은 마력이 담긴 무기가 아니면 타격을 입지 않는다. 당연히 그런 놈들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무기인 만큼 가격이 비싸다.</p>  
<p>'당분간은 이놈을 써야겠네.'</p>  
<p>헌터용 무기를 살 돈이 없어서 맨몸으로 싸우던 처지였다.</p>  
<p>싸구려 장검이지만 이 정도면 감지덕지였다.</p>  
<p>'이젠 내 거다.'</p>  
<p>김 씨는 이 검을 보면 돌려 달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지 모른다.</p>  
<p>자신을 구해 준 은인을 버리고 달아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니.</p>  
<p>하지만 이 검도, 이 기회도 모두 목숨과 맞바꿔 손에 넣은 것이다.</p>  
<p>쉽게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매서워졌다.</p>  
<p>지하 신전에서 진우는 두 가지를 배웠다.</p>  
<p>하나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약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.</p>  
<p>그것뿐만이 아니다.</p>  
<p>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가대 출신 청년을 말리지 않았고, 김 씨 아저씨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 씨 아저씨를 돕지 못했다.</p>  
<p>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못 본 척 눈을 감았다.</p>  
<p>부끄럽지 않으려면 보다 강해져야 했다.</p>  
<p>그리고 또 하나.</p>  
<p>'불필요한 친절은 베풀 필요가 없다.'</p>  
<p>친절 뒤에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배신이었다.</p>  
<p>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두고 동료 셋은 도망쳤다.</p>  
<p>애타게 불렀지만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.</p>  
<p>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.</p>  
<p>'기브 앤 테이크.'</p>  
<p>이제 조건 없는 선의로 위기를 자초하는 짓은 않겠다.</p>  
<p>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목숨이 아닌가.</p>  
<p>그것이 진우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었다.</p>  
<p>보다 강하게, 보다 독하게.</p>  
<p>"할 수 있다."</p>  
<p>진우는 한 번 배운 것을 좀처럼 잘 잊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어느 포장마차 안.</p>  
<p>간호사 최유라는 간만에 만난 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회포를 풀고 있었다.</p>  
<p>"아, 맞다."</p>  
<p>유라는 친구가 헌터협회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다.</p>  
<p>자신이 헌터 지정 대형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친구의 덕이 컸다.</p>  
<p>"너 헌터에 대해서 잘 알지?"</p>  
<p>"남들만큼은 알지. 왜?"</p>  
<p>"혹시 다친 상처가 빠르게 아무는 능력 같은 걸 가진 헌터도 있어?"</p>  
<p>"치유계 헌터들이 그렇잖아. 회복 주문 한방이면 어떤 상처도 빠방~!"</p>  
<p>"아니, 아니. 마법 같은 거 말구. 무의식중에."</p>  
<p>"무의식중에?"</p>  
<p>"예를 들면 기절했다던가 아니면...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던가."</p>  
<p>친구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에이, 말도 안 돼. 그건 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인데, A급 이상의 최상급 마수들 중에서도 특수한 놈들만 보이는 특징이야."</p>  
<p>"사람 중에는 없고?"</p>  
<p>"응. 그런 능력을 가진 헌터는 들어 본 적 없어."</p>  
<p>"그... 그렇지?"</p>  
<p>역시 잘못 본 걸까?</p>  
<p>유라는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그때 친구가 말했다.</p>  
<p>"하지만... 몰라, S급 헌터들이라면 가능할지도."</p>  
<p>친구의 말에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S급?"</p>  
<p>"S급 헌터들은 워낙 괴물 같은 사람도 많고, 세간에 공개된 정보도 별로 없으니까. 뭐라더라? 백호 길드의 백윤호 헌터는 진짜 괴물 같은 걸로 변신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."</p>  
<p>하지만 성진우는 E급 헌터였다.</p>  
<p>헌터들의 등급은 협회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,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었다.</p>  
<p>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로 호기심이 생긴 유라는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성진우에 대해 알아보았다.</p>  
<p>'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기에는 그 사람 등급이 너무 낮... 아!'</p>  
<p>헌터들의 재각성!</p>  
<p>그러고 보니 어제인가 그제 진우의 병실 근처를 지나쳐 갈 때, 안에서 재각성 운운하던 소리가 들렸던 것이 기억났다.</p>  
<p>'설마 그 사람 상급 헌터로 재각성 한 거야?'</p>  
<p>평범한 사람들은 S급 헌터들과 친해지기는커녕 한 번 마주치기도 힘들다.</p>  
<p>S급의 숫자가 워낙에 적은 데다 그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이다.</p>  
<p>그런데 이게 웬일,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신의 환자가 되다니.</p>  
<p>E급에서 이제 갓 S급이 된 헌터라.</p>  
<p>'아직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...'</p>  
<p>지금 점수를 따 두면 혹시 자신에게도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.</p>  
<p>S급 헌터와 친분을 쌓을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니 말이다.</p>  
<p>남들은 돈을 주고서도 만나기가 힘든 이들이 바로 상급 헌터들이었다.</p>  
<p>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유라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져 갔다.</p>  
<p>"어머, 계집애. 뭐 좋은 일이라도 있니? 왜 이야기하다 말고 실실거려?"</p>  
<p>"아, 아냐. 아무것도 아냐."</p>  
<p>유라는 연신 고개를 저으면서도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쉽게 지우지 못했다.</p>  
<p>8. 레벨 업!</p>  
<p>"어머, 저 사람 좀 봐."</p>  
<p>"저 환자 몸이 원래 저렇게 좋았나?"</p>  
<p>젊은 여간호사 둘이 복도를 지나쳐 가는 진우를 보고 속닥거렸다.</p>  
<p>진우는 못 들은 척 병실로 돌아갔다.</p>  
<p>일일 퀘스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.</p>  
<p>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.</p>  
<p>그중 하나가 몸에 일어난 변화였다.</p>  
<p>진우는 병실 구석에 위치한 거울 앞에 가 섰다.</p>  
<p>"흠, 흠."</p>  
<p>전신 거울 앞에서 몸매를 살핀다.</p>  
<p>여대생에게나 어울릴 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쑥스러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두어 번 헛기침하고나서야 거울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역시... 달라졌다.</p>  
<p>몸이 변하고 있었다.</p>  
<p>'근육이 붙었다.'</p>  
<p>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육이 늘어난 것이었다.</p>  
<p>군살이 사라지고 근육이 늘기 시작했다.</p>  
<p>덕분에 어깨도 넓어졌고, 체형 자체가 전보다 커졌다.</p>  
<p>'그래도 둔해 보이진 않아.'</p>  
<p>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근육.</p>  
<p>전체적인 감상평을 말한다면 '날렵해 보이는' 정도라고 할까?</p>  
<p>남자인 자신이 봐도 괜찮게 보이니 젊은 여간호사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.</p>  
<p>'역시 이것 때문이겠지.'</p>  
<p>진우는 상태창을 불러 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1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없음</p>  
<p>HP: 100</p>  
<p>MP: 10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31 체력: 10 민첩: 10 지능:10 감각: 10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</p>  
<p>어느새 근력이 30을 넘어가 있었다.</p>  
<p>다른 스탯의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니, 일단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근력 스탯에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투자했다.</p>  
<p>마수를 잡을 때 가장 도움되는 게 힘이기도 하니까.</p>  
<p>'겨우 며칠 운동했다고 체형이 달라질 리는 없다.'</p>  
<p>그렇다면 생각해 볼 가능성은 하나.</p>  
<p>근력 수치가 자꾸 상승하니 근육이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모양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.</p>  
<p>그 외에 다른 이유는 짐작하기 힘들었다.</p>  
<p>너무 근력에만 투자한 것이 아닌가, 잠시 걱정되기도 했지만 달라진 몸을 보고 있으니 흐뭇해지며 걱정 또한 달아나 버렸다.</p>  
<p>'그래도 너무 눈에 띄긴 하네.'</p>  
<p>간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.</p>  
<p>아무래도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다 보니 보는 눈도 다른 것이다.</p>  
<p>청력이 좋은 진우는 근처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았다.</p>  
<p>'슬슬 나가야 할 때가 됐나?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